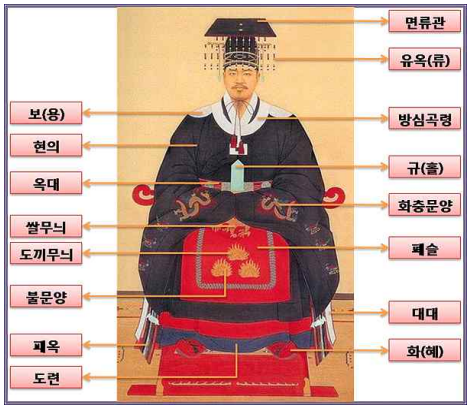
복식문화사

4강. 조선시대의 복식 1

교재: 우리 옷 이천년, 류희경 외, 미술문화, 2011

조선시대 복식-왕복과 왕세자복

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 )			왕이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낼 때나 초하루, 동지, 조회, 수책, 왕비를 맞을 때 등에 입던 ( )이다. -먼저 바지, 저고리를 입고 버선 위에 중단을 입은 다음 상을 입으며 위에 현의를 입는다. -황제는 ( )이며 왕은 12장문에서 일·월·성진을 제외한 ( )이다.
( )			왕이 신하의 조현을 받을 때 입던 옷으로 삭망, 조강, 조강, 진표 때에도 입던 면복 다음 가는 옷이다. -( )을 쓰고 ( )를 입는다. -흰 버선과 검은 신을 신는 점이 면복과 다르다.
( )			왕이 평소 집무를 볼 때 입던 옷이다. -익선관, 곤룡포, 옥대, 화로 이루어진다. -왕세자는 흑색 ( )에 4조 ( )를 양 어깨와 등과 가슴에 달았고 다른 것은 왕과 같다.

( )			왕이 능에 갈 때나 거둥할 때, 국난을 당했을 때 입는 옷으로 ( )을 쓰고 ( )을 입고 광사대를 매고 화를 신고 검을 찬다.
( )			머리에 ( )을 쓰고 바지, 저고리 위에 동달이와 전복을 입은 다음 광대와 전대를 띠고 화를 신고 지휘봉인 ( )를 든다.
( )			평상복으로는 서민과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 ),( ),( ) 등이 서민과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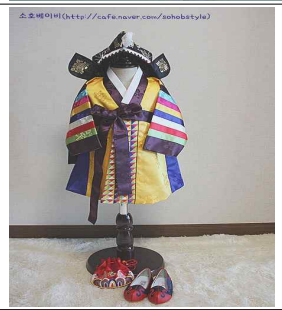
조선시대 복식-백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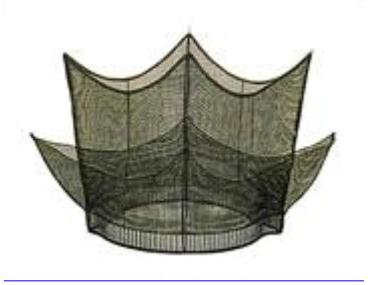
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 )			왕이 면복을 입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신하들이 입고 참석하던 옷이다. -( )과 ( )만 입을 수 있고 나머지 백관은 금관조복을 입는다. -조복과 형태와 구성 요소가 같으나 겉옷과 중단 색깔이 다르고 방심곡령이 추가되었다.
( )			왕이 면복을 입고 제사지낼 때 백관이 입고 참가하는 옷이다. -경축일, 정월 초하루, 성절, 동지, 조칙을 반포할 때, 표를 올릴 때도 입으며 ( )이라고도 한다. -품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 )			초하루, 보름, 조회, 동지에 왕세자에게 백관이 하례할 때 입는 옷으로 제복, 조복 다음간다. -복두에 포, 대, 홀, 화로 이루어지며 ( )과 ( )에 따라 품계의 상하를 가렸다. -형태는 옷깃이 둥글고 소매가 아주 넓다.

(　　)			관리들의 사무복으로 국가의 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했으며 색은 정하지 않아 여러 가지 색이 사용되었지만 왕조마다 유행색이 있었다. -(　　)를 쓰고 단령, 대, 화로 이루어지며 (　)로써 품계의 등위를 가렸다.
(　　)			관리들의 사무복으로 흉배가 없는 단령으로 상복 다음 간다. -형태, 구성, 재료가 (　　)과 같았고 (　)으로 구별하였다.
(　　)			문·무관이 왕을 수행할 때, 사신으로 갈 때, 국란을 당했을 때 입는다. -머리에는 (　　)을 썼고 (　　)을 입고 광사대를 띠고 검을 찼다. -색은 정하지 않았다.

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중인복	녹사복			중인 계급에 속하는 말단 관리로 품계가 없는 중앙 관서에 근무하는 아전이 입던 옷.
	서리복			무각 평정건에 단령을 입고 허리에 실띠를 맨다.
	나장복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은 하급 관리인 나장의 옷.
	사령복			의금부와 각조 사령은 좁은 흑색 갓에 ( )을, 한성부와 5부도사 사령은 흑색 갓에 ( )을 입었다.
서민복	직령			조선 왕조 초기부터 말기까지 서민에서부터 왕으로까지 두루 착용했다. -옷감은 마포, 갑사, 모시, 명주, 단이 사용되었고 색은 백, 홍, 아청이 사용되었다. -( )만 단령과 다르고 다른 것은 단령과 똑같았다.

	철릭			고려에서부터 계속 입혀진 것으로 겉옷의 밑받침 옷으로 입혀졌다. -( )와 ( )을 따로 재단하여 봉재 된 옷으로 깃은 곧은 깃이다. -편복, 군복, 융복으로 왕, 문·무관, 무인, 악인, 서민 등이 모두 입었다.
	답호			( )이 있는 반소매 포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왕과 관리들이 ( )안에 입거나 사대부의 겉옷 위에 덧입던 옷이다. -형태는 곧은 깃이고 반소매가 팔꿈치에 이르며 옷 길이는 발목까지 오고 옆트임이 있다.

아동복			
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 )			( )은 사내아이가 관례전에 입던 평상복이다. ( )은 곧은 깃에 소매가 넓고 무가 없으며 옆선이 단에서 1/3정도만 트였고 옷깃, 섶, 수구, 밑단,옆선의 트임선까지 모두(검은선)이 둘러져있다.
( )			어린아이들이 돌때부터 5~6세까지 입던 옷으로 남자 두루마기는 소매를 ( )으로 하고, 길은( ), 섶은( ) 무는( ), 무와 깃과 고름은 ( )으로 하며 안감은 진분홍으로 한다.
관모			
( )			( )은 태종18년 1월 1일부터 관리들의 평상복에 사용되다가 차츰 착용 범위가 넓어져서 서민도 외출, 제사, 기타 의관을 갖출때 착용 하였다.
			( )은 관이나 갓을 쓰기 전에 반드시 쓰는 기본이 되는 쓰개이다.
			( )은 망건의 덮개이며 입모의 받침으로 착용한다.

<table>
<tr><td rowspan="3"></td><td>  </td><td> </td><td>( )은 머리에 쓰는 일반 명칭이나 후기에 평상시 머리를 가리기 위해 썼던 관을 말하며 집안에서만 착용하였다.</td></tr>
<tr><td> </td><td></td><td>( )은 유학자나 유생들의 관모로 흑색의 베,모시,무명등으로 만드는데 양측으로 귀가 나 있고 끈을 달아 갓끈처럼 매기도 했다. ( )은 검은 헝겊으로 위는 둥글고 뾰족하게 하고 뒤에는 넓고 긴자락이며 끈으로 뒤로 잡아메게 만든것이다.</td></tr>
<tr><td></td><td></td><td>( )은 소나무 겨우살이로 만든 것으로 스님의 모자이다.</td></tr>
<tr><td colspan="4">신</td></tr>
<tr><td>( )</td><td> </td><td></td><td>( )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남자들이 편복에 신던 가죽신으로 조선시대 말기에는 왕도 편복에 신었다.</td></tr>
</table>

			(　　)은 남녀가 신은 신으로 바닥에 징이 달려있고, 가죽에 들기름을 입혀 방수가 되게 했고, 바닥에 있는 징은 진흙이 묻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는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이 조복과 제복에 신었던 신발이다.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장식이 없는 단순한 것이다.
			(　　)는 산간 지방에서 눈오는 날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위에 덧신는 신발로 나무 덩굴종류로 만들었다.
			(　　)눈오는 날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방한을 위해 짚으로 만든 장화 모양의 신발이다.

			(　　)는 삼으로 삼은 신발로 말기에 가서 짚이나 풀 종류를 가지고 곱게 짠것이다.